브이케이

기술력 · 브랜드 '양대산맥' 구축

보다폰 등에 업고 유럽무대 석권 … VMTS 통해 핵심칩 개발 박차

이철상 VK 대표

과거 휴대폰 수출을 주도했던 수많은 중견업체들이 퇴출과 재기에 안간힘을 쏟는 반면 'VK mobile'이라는 자체브랜드로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회사의 경쟁력은 업계에서 인정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영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보다폰을 통해 영국시장에 제품 공급을 시작한 VK는 올 4월 영국 보다폰과 연간 공급을 또다시 체결, 유럽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철상 VK 대표는 "보다폰을 통한 연이은 유럽시장 진출은 세계적으로 VK의 기술력을 인정 받은 쾌거"라며 "현재 연이은 해외공급 계약 수주로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궁극적으로 보다폰 망을 통해 전세계 30여 개 국가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자체브랜드 공급확대

VK는 최근 심포니아(Simfonia), 텔레소타(Telesota) 등 러시아 단말기 유통업체로부터 'VK320' 모델 2만5000대를 주문 받은 데 보다폰의 독일 법인(D2)을 통해 샘플폰을 납품해 독일 시장에도 진출하게 됐다. 러시아 시장의 경우 올 초부터 모스크바에 현지 사무실을 설립, 현지영업 체제로 전환하면서 거래선을 다변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

이 대표는 "현지 시스템 구축으로 발 빠른 시장대응이 가능해져 모스크바를 거점으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인근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로도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프랑스 시장에도 현지 대규모 유통 전문기업인 아브니르(Avenir Telecom)사에 주력 단말기인 VK530을 비롯해 최신 멀티미디어 휴대폰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물량만 70만 대에 이르는 이번 계약은 약 1억500만 달러의 규모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28%를 차지하는 대형 수주건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미주 지역 최대 유통사 중 하나인 인포소닉스(InfoSonics)에도 9월말까지 VK530US모델 6만대를 공급하기로 합의, CDMA 최대 시장인 미주진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미주시장 공급계약 수주는 초기물량으로 소량 선보였던 VK530이라는 제품이 현지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추진된 것"이라며 "이 제품은 인포소닉스를 통해 텔셀(Telcel), 텔레포니카(Telefonica) 등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VK530의 경우 보다폰 자체 판매조사 결과 1, 2위를 차지할 만큼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화권 시장 또한 VK의 텃밭 중 하나로 특히 전지현, 안재욱 등 한류열풍을 이용한 스타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파트너 다변화에 주력한 VK는 지난 2003년 순수 중견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사건

지난 97년 이동전화 단말기용 2차 전지업체로 설립된 VK주식회사(대표 이철상 www.vkcorp.co.kr 이하 VK)는 2001년 GSM 휴대폰 사업에 진출, 현재 중국과 유럽은 물론 미주, 호주, 러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는 휴대폰 중견이다. 해외시장 인지도를 토대로 지난 2003년 내수시장에 브랜드를 알린 데 이어 올 3월 프랑스에 VMTS라는 자회사를 설립, 핵심 칩을 비롯한 휴대폰 토탈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을 터뜨린다. SK텔레콤 전략단말기로 공급된 VK100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존재를 알린 것. 지난해 7월에는 130만화소 카메라를 내장한 슬라이드폰 VK200C로 메가픽셀폰 대중화에 앞장 섰고 올 7월에는 30만원대 200만화소폰으로 저가 고기능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메이저와의 정면 대결보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틈새공략으로 차별화에 나선다는 복안.

쿼드 밴드 휴대폰 VK1000

종합 모바일 전문업체로 거듭난다

VK는 최근 쿼드밴드를 지원하는 휴대폰(모델명: VK1000 시리즈)을 개발해 업계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 개발한 신제품이 단순히 다중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가 아니라 자체 개발한 핵심 칩을 장착했다는데 회사측은 의의를 두고 있다.

VK의 프랑스 자회사인 VMTS에서 개발한 핵심 베이스밴드 칩을 내장해 GSM방식 850, 900, 1800, 1900MHz 등 4개 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해 전세계 100여 개국에서 별도 로밍 작업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칩 솔루션과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자체 조달과 표준화를 통해 생산된 첫 제품으로 수익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철상 대표는 "VK1000시리즈는 베이스밴드 칩 솔루션부터 단말기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수직계열화가 집적된 제품"이라며 토탈 솔루션 공급을 위한 생산체제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베이스밴드 칩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부품의 77%를 국산화할 수 있었다고. 또한 VMTS의 3G 칩을 사용한 중저가 클램셀 또는 바 타입 휴대폰을 내년 4분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이다.

DMB 단말기 개발도 한창이다. ETRI와 지상파 DMB 공동개발을 진행, 최근 2.2인치급 지상파DMB 전용단말기 VK-D100을 발표한데 이어 내년 1월 첫 위성DMB폰 VK800C(가칭)에 대한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증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프랑스에 3G 인증까지를 커버하는 인증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유명 브랜드와 전략적 제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내외 투자자들과 접촉 기회를 늘린다는 방침 하에 최근 홍보팀을 신설하는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을 다각화하고 있다.

VK는 2003년 1900억원, 지난해 3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억불 수출탑을 수상한데 이어 최근 딜로이트(Deloitte Touche Tohmatsu)가 선정한 '아태지역 500대 고속 성장기업'에서 6위에 선정되는 등 고속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은 1614억원으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철상 대표는 "시장개척과 기술력 확보 등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간"이라며 하반기 수출과 내수 공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OEM과 ODM에 치중했던 회사들이 업체간 경쟁으로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과 같은 최소한의 조치는 마련해주어야 한다"라며 중견 및 벤처 업계의 위기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

글 | 최광열 기자(모바일타임스)